



정몽혁  
<현대정유 대표이사 사장>

##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제 만산홍엽(滿山紅葉)의 자태를 뽐내던 가을이 슬그머니 물러나고, 하얀 서설(瑞雪)이 온 대지를 감싸는 동장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차가운 삭풍으로 만물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위대한 그 속의 생명은 다가올 찬란한 봄에 개화(開花)를 꿈꾸면서 온갖 시련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지금의 국내와 기업환경도 삭풍의 계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지(Fortune)에 의하면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가 새로이 진입하거나 탈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업 순위의 변화와 부침은 최근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만큼 달라지는가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 시장 중국의 WTO 가입등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기업간의 흡수합병(M&A)의 확산,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경쟁 기초의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석유산업도 예외 없이 올 한해 수많은 외부적 충격과 경영 환경 변화를 실감하며 드높은 도전의 파고를 경험했습니다. 美 테러사태의 여파로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국내 석유시장은 환차손과 과당경쟁으로 이증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자유화 이후, 수입업자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어 지난 99년 0.74%에서 마무리던 경질유 내수 시장점유율이 올해 9월 현재 4.0% 까지 증가하였으며, 일부 대기업들도 석유수입업에 뛰어드는 등 경쟁구도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3/4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은 지난해 동기대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겨울철 성수기인 4/4분기를 맞아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영업환경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향후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난관과 도전의 파고는 더욱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知 白 慧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

또한 최근 산자부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난방, 열원용 등 에너지 소비의 패턴도 종전의 석유중심에서 도시가스, 심야전력 등 타에너지원으로 급속 전환되면서 LNG 등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해 동기보다 10.7%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석유 소비는 1.1%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모색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간 현실을 무시한 과당경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체간 출혈경쟁은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내 석유산업 전체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업계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시장 여건임을 감안할 때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 등 제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이제는 국내 시장을 뛰어 넘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설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석유산업의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IT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on-line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유소 물류 거점화 사업, 인터넷 e-business와 연계한 새로운 영역의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산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경영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차츰 타산업과 석유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변화된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서비스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국내 석유산업 역사 보다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더 크듯이, 앞으로 석유시장의 환경 변화는 더욱 크고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진취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협요인을 기회의 요인으로 얼마든지 전환시켜 우리 석유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